민주, 한나라 '좌클릭 행보'에 긴장

여권 "개혁적 중도 보수·감세 철회" 움직임

민주 "진보 집착하다 총선·대선 참패" 지적

민주당이 이념적 지표와 관련, 진보 색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점차 중도 진영을 잠식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정치권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일각에서는 진보에만 집착하다가는 중도 진영의 외면을 받으면서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지난달 26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새로운 당의 노선으로 '개혁적 중도 보수'를 제시했다. 이는 실용을 기반으로 보수 세력은 물론 중도 진영의 지지를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한나라당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 정책인 '감세'에 대해 철회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는 등 중도 진영을 고려한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차기 대권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평가받는 박근혜 전 대표가 법인세 감세는 계획대로 하고 소득세 감세는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개혁적 중도 보수 노선'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개혁적 중도 보수 노선은 한나라당의 지지 기반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 내부에서는 개혁적 중도 보수 노선을 받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움직임과 관련,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집권 후반기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한 여권의 미봉책이자 '위장 친서민 정책'이라고 공격하며 맞서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한나라당을 '부자정당'이라고 비판하며 서민·중산층 정당임을 내세웠던 민주당의 차별성이 희석되고 중도층을 잡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는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또 다시 한나라당에 참패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응책을 놓고도 강경파와 중도 온건파간 의견이 엇갈리는 등 향후 내홍으로 번질 소지도 있다. 일단 당내 강경파는 이럴 때일수록 진보적 색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온건파는 오히려 중도 진영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실용적 우클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내의 대표적 진보 강경파로 부상하고 있는 정동영 최고위원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진보적 민주당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복지국가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 다른 당내 인사도 "지금 당장은 진보보다는 중도 진영 공략이 정치적으로 달콤하기는 하겠지만 본질적인 민주당의 지향점은 진보여야 한다"며 "국민은 서민과 함께하는 민주당을 결국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중도 성향의 전남지역 중진 의원은 "민심은 결국 중도에 있다"며 "특히, 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용적 중도 노선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나라당은 내부적 변화의 노력이 드러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아직까지 노선 등과 관련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다"며 "민주당이 내부적 동력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4대강 저지 전면 대여 공세

예산국회 개시… "불필요 예산 삭감 민생복지로 돌릴 것"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1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국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민주당이 4대강 사업 저지를 천명하며 전면적 대여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예산 확충, 복지예산 복원을 위해 당 지도부와 특위가 나서서 4대강 반대 투쟁 열기를 고조시킬 것"이라며 "'대포폰 게이트' 실체와 배후, 몸통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예산국회에서 불필요한 4대강 예산을 반드시 삭감, 민생복지예산을 되돌려 놓겠다"며 "연 11만명에 대한 일자리 창출, 경로당 난방비 지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위한 국고지원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국토해양위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4대강의, 4대강에 의한, 4대강만을 위한 예산'이라며 "국토부 예산에서 5조8319억원을 깎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4대강 사업 예산 집중 투입으로 도로·철도·항만 등 다른 SOC 분야 예산이 줄 삭감돼 사업완공연도의 연기가 불가피하고 원칙 없는 예산 나눠먹기로 SOC 투자 불균형이 우려되고 있다"며 4대강 예산을 포함한 정부 예산안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상임위별 예산심사도 민주당이 정국 현안과 연계하고 나서면서 진통이 잇따랐다.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에서 여당 내에서도 소득세 감세철회·보완론이 나오는 만큼 올해 정기국회에서 항구적으로 감세철회안을 결론짓자며 정부와 한나라당을 압박했으며 정무위원회에서는 민간인 불법사찰로 파문을 일으킨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외통위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 전 타결을 목표로 진행됐던 한미 FTA 추가협상과 관련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했으며 법사위에선 검찰의 편파 수사를 문제삼아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당 부분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공청회에 이어 17일, 19일, 22일 3일간 김황식 총리 등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벌인다. 예결위는 또 ▲23~24일 경제부처 부별심사 ▲25~26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27~28일 계수조정소위 자료작성 ▲29~30일과 12월1일 계수조정소위 심사·의결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309조6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 '감세정책 보완' 가닥

소득세 최고 세율 신설 검토

한나라당이 법인세 감세 기조는 유지하되, 고소득층의 소득세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부자 감세정책을 부분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알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나라당은 오는 2013년부터 적용될 대기업 법인세의 경우 예정대로 인하하고,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35%) 구간인 '연소득 8800만원 초과' 구간을 철회하는 대신 '1억원 또는 1억2000만원 이상'으로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안상수 대표도 15일 "소득세는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 그 구간에 대해 감세를 적용하지 않고 35% 최고세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은 감세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표는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8800만원 초과 소득세 최고구간에서는 현행 세율 유지가 계층 간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분위기에 힘을 실었다.

홍준표 최고위원도 법인세의 경우 예정대로 인하하되, 현행 소득세의 최고세율 구간은 현행대로 35%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문제는 청와대가 현행 감세 기조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유보된 소득세·법인세의 세율(인하)을 2013년에 할지, 아니면 1년 더 연장할지는 그때 경제사정을 봐서 하면 된다"면서 "그것을 조정한다고 해서 감세 대원칙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오는 22일 정책의총을 열어 감세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당의 공식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기득권 반발로 외고 개혁 미완

자사고·일반고 중 하나로 가야"

한나라 정두언 최고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은 15일 "지금의 외고는 불법 특혜 제도"라며 "외고는 자립형 사립고나 자율형 사립고, 일반고 중 하나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고는 처음부터 잘못 태어난 학교로서 불공정 교육의 상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작년 외고 개혁이 미완으로 끝난 것은 기득권의 반발과 일부 보수층의 상황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라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작년 차관이었을 때 기득권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트릭을 시도, 외고를 존치하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안을 내놨지만 외고는 이마저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부 보수층은 외고 하면 평준화 이전의 일류학교를 생각하지만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며 "당시의 일류 학교들은 공정한 선발경쟁을 통해 시간을 두고 일류가 된 것이지만, 외고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선발권 특혜를 줘 흘로 뛰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외고에 부당하게 선발권 특혜를 준 것은 역사상, 지구상 없었던 해괴망측한 제도이자 공정하지 않은 제도"라며 "이는 학부모와 학생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특수층의 전유물"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인권위 내분 악화… 전문위원 등 61명 사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의 연쇄 사퇴에 이어 인권위가 위촉한 전문·자문·상담 위원 등 61명이 집단 사퇴해 인권위 내분 사태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이들 위원은 15일 오전 11시께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서 동반 사퇴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인권위 위촉을 받은 전체 전문·자문·상담 위원은 160여명으로, 이번에 3분의 1이 넘는 이들의 집단 사퇴로 인권위 자문위원회는 소집 자체가 어려워져 기능 마비가 우려된다.

사퇴 의사를 밝힌 위원 중에는 손숙 전 환경부 장관과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정책자문위원 15명과 신창현 환경분쟁연구소 소장, 이유정 변호사 등 조정위원 5명이 포함됐다.

회견에 참여한 위원 10명은 '인권위가 부여한 모든 직을 사퇴하며'란 제목의 성명에서 "현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는 좀비기구, 식물위원회, 고사(枯死)위원회 등으로 불리고 있다"며 "현 위원장은 취임 이후 독단적인 조직운영과 정부 눈치 보기로 일관해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위원장의 즉각 사퇴와 위원장을 비롯한 인권 위원 인선을 위한 올바른 인선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기능식품신문/이정식지음
암세포 만 골라
자살로 몰아넣는
해조 후코이단 Fucoidan
세계는 왜 후코이단을 주목하는가?
항암식품으로 널리 알려진 차가버섯, 산삼, 플로폴리 등은 면역계포를 강화시키거나 그 작용을 돕는 역할에만 그친다.
그러나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후코이단은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강력한 항암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아포토시스(Apotosis:세포의 자가소멸, 자살)라 한다.후코이단은 암치료 및 예방에 응용할 수 있는 대체의학의 꽃으로 일본과 미국, 유럽의 선진국에서 각광받고 있다.
암을 극복한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본문 중에서)
위암 재발 방지를 위해 먹기 시작한 해조 후코이단 덕분에 위암 전이에 대한 걱정이 없어졌고 몸상태도 크게 호전되었다.
유방암 유방 적출수술 후, 남아 있는 한쪽 유방에도 암이 전이될까두려웠는데, 해조 후코이단을 꾸준히 복용한 결과 전이가 일어나지 않았다.
전립선암 전립선에 생긴 암이 뼈로 전이되었지만 수술이나 화학요법을 받긴 무리가 있고, 도 QOL 유지를 위해 해조 후코이단을 선택했다. 그결과 PSA수치가 기적적으로 낮아졌다.
난소에서 폐, 간으로 전이된 암 난소암이 폐와 간으로 전이되어 무척 힘들었는데 해조 후코이단 복용 후 폐암은 사라지고 간암도 많이 호전되었다.
대장암 2달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았으나, 해조 후코이단이 지닌 아포토시스, 혈관신생 억제, 면역부활작용 덕분에 대장의 암덩어리가 줄어들고, 1년이 지나도록 건강하게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내종암 방사선요법의 부작용을 덜기위해 해조 후코이단을 먹은 것이 최상의 선택, 덕분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고 종양이 점점 사라지는 중이다.
정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 완도에 국내최초로 후코이단(fucoian) 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지 가공시설이 농림수산식품부, 전라남도, 완도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50억원의 사업비로 완공되었다. (주)해림후코이단은 완도 청정해역의 미역과 시마에 0.3%만 들어있는 바다의 보대라 불리는 후코이단을 본격적으로 생산하여 국민건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 창에 기능식품신문 을 치세요 무료주문전화 : 070-7809-5151
출판기념으로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선착순 100명/택배비 본인부담)

생각보다 좋은 비누 평미인
평미인은 (사단) 아세아-태평양 자연 의과학 연구재단에서 제조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우리 몸 속 70% 물과 외부에서 씻는 물을 동조시켜 피부통로를 열리게 하여 몸속의 필요없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나오게 하는 원리 입니다.
주요성분
• 특수 숙성한 식물성 유지
• 살구씨 오일 및 분말
• 100% 천연향 로즈마리
• 천연신소재 HJ-1.2
• 글리세린
사용범위
• 모든 환자의 전신 목욕
• 유아목욕, 노인 냄새 제거
•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
• 잦은 화장을 하는 여성
•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 환자를 많이 다루는 사람
• 피부질환(아토피, 여드름, 무좀, 습진, 비염)
• 치질로 고생하는 사람
비누 사용시 유의사항
- 5분간 2회 이상 비누 맛사지
- 보관시 다른 비누와 따로 보관
- 처음사용시 5분 2회 손 • 발 맛사지 후 사용
◆ 광주 · 전남 · 북 판매점/판매원 모집 ◆
상담문의 ☎ 010-3231-3665

HALLA 한라 친환경 전동운반차
농촌, 과수원, 농장에도~ 하우스에도~ 마트, 시장에서 배송할 때도~ 공장, 창고에서도~
농림부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 연 3%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안전한 운송수단을 원하신다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라 전동운반차로 바꾸세요!
월 전기료 5,000원
취급점 · 영업사원 · 딜러모집
농기계 관련 사업자 · 유사업종 경험자
무공해 친환경 전기에너지를 사용합니다.
– 월 전기료 약 5,000원 정도로 부담이 적음
– 충전식 밧테리를 사용하여 소음과 진동의 거의 없다.
차별화된 안전과 실용성
– 버튼식, 다이얼식 조작패널, 배터리 잔량 표시 램프
– 초절전 고효율 LED 전조등, 방향지시등 채택
– 물품 수납이 가능한 시트박스
– 한번 충전시 50㎞ 운행
– 고강도 안전 캐노피 적용(옵션 사항)
– 최대 200Kg까지 적재 가능
완벽한 사후 관리 시스템
– 국내 제조 생산을 통한 안정성 및 내구성 확보
– 전국 A/S 네트워크를 통한 철저한 사후 관리
장기저리 농협융자를 통한 초기 구매부담 최소화
– 판매가의 90% 장기저리융자, 1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3%
일반 유류 운반차 유류비용으로 한라 전동 운반차 자금 가능
믿음과 화합으로 번영하는 한라그룹 한라웰스텍(주)
구입문의 TEL 062-956-8823 · 061-852-8896 H.P 010-9468-3282